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 'GC녹십자웰빙', 상장예비심사 통과!

- ▶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4분기 내 코스닥 입성 목표
- ▶ 국내 최초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PNT솔루션' 개발
- ▶ 세계 최초 암악액질 혁신신약(GCWB204) 개발, 유럽 임상2상 진행 중

<2019-07-26>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 'GC녹십자웰빙'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설립된 GC녹십자웰빙(대표이사 유영효)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 우선 중심의 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는 최근 의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국내 최초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스템 'PNT(Personalized Nutrition Therapy) 솔루션'을 개발한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PNT솔루션'은 문진 및 검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 영양소를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처방 후에는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홈케어, 메디케어 등을 제공한다. 'PNT 솔루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웰빙의 추구다.

GC녹십자웰빙은 병의원용 건강기능식품인 'PNT 솔루션'과 일반 건강기능식품의 이원화를 통해 B2B, B2C시장을 모두 공략하며 건강기능식품 내 차별화에 성공했다. 또한 태반주사(라이넥)를 중심으로 한 영양주사제 사업부문은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며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수익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세계 최초의 암악액질(Cancer Cachexia) 치료제인 혁신 신약 'GCWB204'의 개발에 성공, 현재 유럽에서 임상2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천연물 소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코스메슈티컬)과 자체 균주 개발을 통한 독자적 특허 원료를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기존사업의 안정화와 신규사업의 높은 성장가능성에 힘입어 실적 부분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1.2%에 달한다. 2018년엔 매출액 539억원, 영업이익 8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9.5%와 61.5% 증가한 수치다.

GC녹십자웰빙 유영효 대표는 "GC녹십자웰빙은 Cure에서 Care로 변화하는 헬스케어 시장에 흐름에 맞춰 국내 최초 'PNT솔루션'을 개발하며 100세 시대 건강한 삶과 웰빙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GC녹십자웰빙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GC녹십자웰빙은 4분기 상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상장주관은 하나금융투자가 맡고 있다

※ 용어설명

암악액질 (Cancer Cachexia)	암환자가 암 또는 항암제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비자발적이며 만성적인 근육손실과 체중감소가 진행되며 고도의 전신쇠약 증상, 무기력,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암환자의 약 50% (900 만명) 암악액질 증상을 보이며, 시장규모는 2017 년 기준 약 1 조 9 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cosmetics) + 의약품(pharmaceutical)을 합성한 신조어로 화장품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장내에서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유익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장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함.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 중 안전성과 기능성 등을 식약처가 별도로 인정한 원료를 의미. 개발 기업은 해당 원료 사용의 독점권을 가짐.